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지원 계획' 수립 생명존중 교육 강화 등 체계적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위기관리 통합 안전망 지원체계를 구축, 심리·정서적 고위기 및 자해(살) 학생 예방 및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과정과 연계한 연 6차 이상 생명존중 교육(사회

적서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자료 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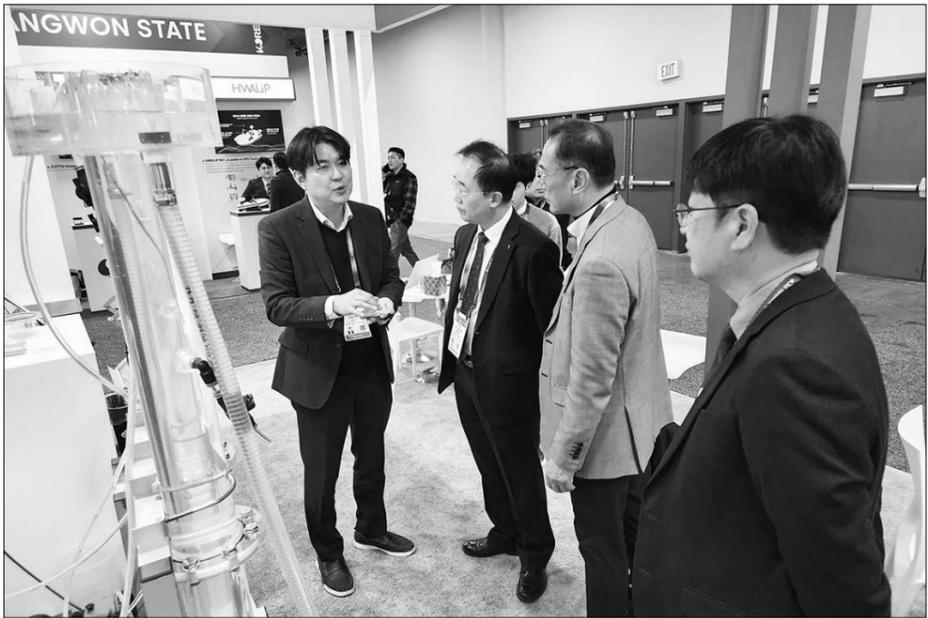
이어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학생 정신건강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 마음치유·생명지킴이 운영 학교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상담·진단·치료가 가능한 병원형위(Wec)센터 2개 기관을 지속 운영한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7~10일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국제전자제품전시회) 내 전북 LINC 공동관에 전주대학교 가족회사인 지이랩(대표 정종민)이 참가해 혁신 기술 기반의 제품을 선보였다. 사진은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일행이 지이랩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가족회사, CES 2025서 혁신기술 기반 제품 전시

지이랩, 결정화 공법 활용 고부가 이온물질·희소금속 유가자원 회수 기술 선보여

지난 7~10일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국제전자제품전시회) 내 전북 LINC 공동관에 전주대학교 가족회사인 지이랩(대표 정종민)이 참가해 혁신 기술 기반의 제품을 선보였다.

13일 전주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전시는 전주대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4개 대학이 연합으로 전북 LINC 공동관을 구성, CES 전시회 스타트업 전용 전시장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대학별 혁신 기술 기반 제품을 전시했다.

이에 전주대는 LINC 3.0 사업단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지이랩이 전시에 참가해 결정화 공법을 활용한 고부가 이온물질 및 희소금

속 유가자원으로 회수하는 혁신기술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이번 CES 2025의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대학도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분야의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새해 맞아 릴레이 명사 특강 마련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릴레이 명사 특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 강연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강연은 15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안 교수는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정치 전문가로 다수의 국내외 언론 방송 패널로 활동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트럼프 2기와 전환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론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자유주의 헌정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청년들에게 헌정주의 위기의 의미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 16일 오후 2시에는 블록체인 전문가인 전명산 소설 인프라테크 대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ICO(암호화폐 공개)에 성공한 인물로, 이번 강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비트코인 수용 사례를 통해 바라본 크립토 경제의 미래 등을 분석한다.

2025학년도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방통중, 내달 7일까지·방통고는 내달 14일까지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중학교 7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103명 등 총 178명이다.

전주덕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의무교육을 면제받은 만 19세 이상인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전북지역 주민등록등본 등재자로,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서접수는 오는 2월 7일까지며, 전주덕일중학교 4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일중학교 교무실(063-249-2600)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센터 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전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오는 2월 14일까지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지원 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063-283-3050) 또는 행정실(063-285-0213), 전주여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실(063-710-558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센터(1544-1294) www.cyber.ms.kr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센터(1544-1294) www.cyber.hs.kr에서도 모집 요강 및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개인역사추적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 '매우 우수'

전북대, 안전관리 전담자 채용·안전점검 및 사고대응 훈련 상시 실시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다양한 성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최종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 구축과 인력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5개 대학과 3개 정부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대는 2022년 이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연구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자를 2명 채용하고, 자체 안전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상시 실시해왔다. 그 결과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등 성과를 거뒀다.

3년 동안 전북대는 고위험 연구실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7회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를 개발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 대처 능력을 높였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율 목표를 설

정하고 포상 및 패널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사업 이전 대비 교육 이수율이 40%p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험실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 지원을 통해 2023년에는 전북권 대학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6개소가 추가 인증을 획득하고 최우수 연구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교내 연구실 안전문화 공모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연구실 안전주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양오봉 총장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교육전문직원 책임교육 실현 역량 키운다

2025년 전북 포함 7개 시·도 교육전문직원 임용자 공동 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15일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북을 포함한 7개 시·도(경남, 광주, 부산, 울산, 전남, 제주)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총 267명이 참여한다.

2016년 전북을 시작으로 7개 시·도가 차례로 개최한 후 7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연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학교 및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 및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책기획 및 보고서 작성 등 실질적 업무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근대화유산이 잘 보존된 군산의 여러 지역을 역사 전문가와 함께 탐방하고, 전북의 소리를 타 시·도에 알리고자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수자를 포함한 민속악단 '땀뿔'이 펼치는 국악 공연도 연수에 포함됐다.

민완성 원장은 "전국의 교육전문직원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연수가 될 것"이라며 "시·도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15일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현업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달 17일까지 총 16회 걸쳐... 조리실무·시설관리·운전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2025년 1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업업무종사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종대재해 및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참여 인원은 조리실무 723명, 시설관리 182명, 운전 59명, 통학버스안전지

도사 35명, 미화 157명, 경비 61명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프락 알아야 할 산업 안전 보건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 자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학교 안전사고 사례 △간담관리 및 대처 방안 등이다.

특히 현업업무종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교육 장소도 8권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장의 근로환경을 잘 파악하

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가 내부 강사로 참여하며,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외부 전문 강사도 초빙해 근로자의 안전 문화 인식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신 핀테크 산업 동향·실무 역량 강화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핀테크 캠프'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핀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박 4일 간 서울 국제금융센터(One IFC)에서 '핀테크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멘토링 세션을 통해 최신 핀테크 산업 동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등 최



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팀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했다.

핀테크 캠프에 참여한 김모(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은 "평소 관심 있

었던 핀테크 기술을 실제로 경험하며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핀테크 산업은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